

대한치과의사협회 주최

구강보건 정책에 관한 심포지엄 盛了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업 현황 및 사업에 관한 주제」



〈지난 11일 개최된 심포지움 開會式광경〉

구강보건정책개발에 관한 심포지엄이 치협임원을 비롯 각 치대교수, 개원의, 공중보건의,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정부관계자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소피텔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됐다.

개회식에 이어 제1, 2부 주제발표 및 토의, 제3부 종합토의순으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은 6명의 연자와 11명의 토의자가 참석, 정부의 구강보건사업 및 교육 인력개발 등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토의결과를 총 8개사항의 전의문으로 작성, 보사부에 강력히 전의키로 했다.

이날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업 현황 및 계획」이란 주제로 첫번째 발표에 나선 오대규 보사부 의정국 지역의료과장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리적·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구강치료를 받

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수도불소화 사업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면의 열구전색사업 등 기존의 예방사업과 구강 보건 교육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한편 신기술에 따른 신규사업의 도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에따른 전담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金鎮範 교수(신구전문대)는 「구강보건사업개발」에서 국민 대다수가 구강병 치료를 위해 연간 6천4백84억원의 치료비를 지출하며 정부의 구강보건정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불화사업 및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전국에 확산시킬것과 계속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 p.986에 계속됩니다.

p.985에서 이어짐

張起完교수(전북치대)는 「구강보건행정 조직 체계」주제발표에서 한국의 경우 치과업무가 수많은 부서에서 분산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강보건국 또는 보건국내에 구강보건과의 설치를 제의했다.

鄭聖徹교수(연세치대)는 「구강보건교육개발」의 주제발표에서 현재 학교보건 및 구강보건교육이 체육교과 일부로 다루어져 있으며 전문교사도 없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교과목을 개편하여 체육교육과에서 보건전공을 분리, 전담교사를 양성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崔有鎮교수(경희치대)는 「구강보건인력개발」의 주제발표를 통해 치과의사의 현재 양성을 적절하지만 구강진료보조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치과진료보조원 제도를 신설하여 치과의사수 이상으로 양산하는 한편 치과위생사는 20%정도 감소시켜야 한다고 밝혔으며 치기공과 입학정원도 조속히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申承徹교수(단국치대)는 「구강보건치료전달 체계」의 주제발표를 통해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전문치과의사제도가 필요하다며 그방안으로 1차구강진료기관에서는 일반개원의에게, 2차기관에서는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제도를 확고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별로 진행된 토의에는 제1부에 金鐘悅연세치대교수, 尹熙哲원장, 金同起조선치대교수, 金昶執공중보건의, 鄭相周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 회장, 白大日서울치대교수, 제2부에는 文京淑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洪錫振전남치대교수, 文一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金瑞東박사, 韓卿燮원장등 11명이 참가했다.(치의신보 第541號에서 轉載)

建議文

1. 보건사회부는 국민들에 구강병예방과 구강병의 조기발견과 진료를 위하여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확대 발전하여야 한다.
2. 보건사회부내에 국민구강보건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구강보건진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전문치과의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4. 보건소 구강보건실 업무는 진료업무 위주에서 구강병예방업무와 무치의지역주민 및 의료보호환자 진료위주의 업무로 전환되어야 한다.
5. 현재의 전국 치과대학 입학정원 등결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6. 전국 전문대학 치기공과 입학정원은 빠른 시일내에 최대의 감소조치가 있어야 한다.
7. 구강보건진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치과진료 조무사제도를 신설 확대하여야 한다.
8. 초·중·고교교서에 잘못된 구강보건교육내용은 수정되어야 하며 각학년에 맞는 내용이 체계적으로 삽입되어야 한다.

□ 學術用語中 잘못 표기하기 쉬운單語 □

- cementum의 墾(벽돌 악)은 아가 아니고 악
- eurption의 萌(풀싹날 맹)은 봉이 아니고 맹
- forceps의 鉗(재갈 겸)은 감이 아니고 겸
- coppung의 置(簞)(가리 조) 는 탁이 아니고 조